

젠더폭력 근절 16일 캠페인

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젠더폭력 근절 16일 캠페인'은
1991년 전 세계 여성주의 단체들의 연대로 시작되어,
지금은 UN Women을 중심으로 180여 개국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인권 캠페인입니다.

매년 **11월 25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의 날'**부터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까지 16일 동안,
사회와 종교,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한 기도와 실천,
그리고 연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교회 안팎의 안전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향한 신앙적 응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5년 UN Women의 국제 주제는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디지털 폭력을 끝내자"
UNiTE to End Digital Violence Against All Women and Girls

디지털 공간에서의 혐오와 사생활 침해,
딥페이크 성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며,
대한성공회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안전한 교회(Safe Church)'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대한성공회 여성선교센터

DAY 1 11월 25일(화)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연대하기



성서말씀 루가 1:46-55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성찰

마리아의 노래는 대림절을 여는 신앙의 고백이자, 정의의 노래입니다.
그녀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느님'을 노래하며, 억눌린 이들과 함께 서겠다는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마리아의 응답처럼 '예'로부터 시작됩니다.
폭력과 차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와 기도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마리아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아 우리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게
하소서.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2 11월 26일(수)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젠더폭력 직시하기



성서말씀 시편 147:3

상처입은 마음을 고치시고 터진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

성찰

세계보건기구(WHO, 2024)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약 3명 중 1명(30%)이 생애 한 번 이상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폭력은 단지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두려움과 낙인 속에서 침묵하도록 강요받고, 공동체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 침묵을 깨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폭력의 현실 앞에 눈감지 않게 하소서.

상처입은 이들의 신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통해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3 11월 27일(목)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검은 목요일 실천하기(1) -침묵을 깨는 용기



성서말씀 사무하 13:19

다말은 머리에 먼지를 들쓰고, 걸치고 있던 장옷을 찢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어
목놓아 울면서 돌아갔다.

성찰

성폭력을 당한 다말은 울부짖으며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오빠 압살롬은 "지금은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지만, 다말의 눈물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울음은 시대를 넘어, 불의와 폭력에 맞서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검은 목요일'은 바로 그 기억과 연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검은 옷을 입고, 세상이 외면한 고통을 기억하며 침묵 대신 연대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다말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소서.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게 하시며,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4 11월 28일(금)

함께 고통을 나누기



성서말씀 갈라 6:2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성찰

2023년 기준, 매일 약 140명의 여성과 소녀가 친밀한 관계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UNODC). 이것은 단지 통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 비극의 언어입니다. 신앙인은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대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대가 그들의 회복의 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5

11월 29일(토)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UN Women 2025 국제 주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디지털 폭력을 끝내자”와 연대하여)



성서말씀 이사야 41:10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내가 도와준다.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준다.

성찰

전 세계적으로 15~19세 여성 청소년 약 1,500만 명이 성폭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영상, 불법 촬영물 유포, 온라인 스토킹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은 수치심과
낙인,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디지털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보호하심 안에서 두려움 대신 용기를, 고통 대신 희망을 얻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전한 디지털 공간과 존엄한 관계 문화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6 11월 30일 (대림 1주일)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여성 리더십을 세우기



성서말씀 로마 16:1-2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뵤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성찰

세계경제포럼(2024)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 94위로,
특히 경제적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부문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이끄는 이로 부르십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모든 세대의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게 하소서.
지혜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끌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평등한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7

12월 1일(월)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세계 에이즈의 날
-마음 상한 이들과 함께



성서말씀 시편 34:18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성찰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전 세계 HIV 감염자의 절반 이상(약 53%)이 여성이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높은 감염률을 보입니다. HIV/AIDS는 단지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편견과 낙인, 차별과 불평등이 얽힌 사회적 문제입니다. 교회는 낙인 대신 존엄을, 배제 대신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질병과 낙인 속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그들의 상처를 감싸고,
모든 이가 존엄과 평등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8 12월 2일(화)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남성들과 함께하기



성서말씀 1고린 16:13-14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굳세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성찰

젠더폭력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과제입니다.
남성의 인식 변화와 참여 없이는 폭력 근절은 불가능합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90% 이상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남성도 사회적 편견 속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힘'이 아닌 '사랑의 리더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모든 남성이 폭력을 거부하고 정의의 일꾼으로 서게 하소서.
사랑과 존중으로 관계를 맺게 하시고, 비폭력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9 12월 3일(수)
세계 장애인의 날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장애와 젠더 정의



성서말씀 시편 139:13-14

당신은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빛으셨습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당신이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를 그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성찰

유엔(UN)은 1992년부터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를 입을 확률이 약 두 배 높으며, 장애 아동의 30%가 학대와 폭력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모든 생명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모든 이가 존엄과 평등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편견을 거두시고, 장애인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를 품는 포용의 공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10 12월 4일(목)
검은 목요일 ②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전쟁과 재난 속의 젠더폭력



성서말씀 미가 6:8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고,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며,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성찰

전쟁과 재난 속에서 여성과 아동은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다칩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수단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강제실종,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폭력은 단순한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 전쟁의 전략이자 인권의 붕괴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고통 속에서 잊힌 이들을 기억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전쟁 속의 여성과 아이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전과 평화를 허락주소서. 폭력의 악순환 속에 정의의 길을 여시고, 당신의 평화가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소서. 아멘.

DAY 11 12월 5일(금)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후위기와 젠더폭력



성서말씀 예레 12:4

언제까지 가뭄 든 이 땅을 내버려두시렵니까? 들풀이 다 마르게 내버려두시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잘못으로 짐승이나 새가 죽어 없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성찰

기후위기는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을 낳고 있습니다.
기후난민의 약 80%가 여성이며, 이들은 이주 과정에서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홍수와 가뭄 이후 가정폭력 증가율이 30%를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당신의 창조세계를 지키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12

12월 6일(토)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권력과 폭력



성서말씀 예레 22:3

법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을 건져주며, 더부살이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지 말라.

성찰

권력은 봉사를 위한 수단이지, 지배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권력자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폭력은 힘의 남용에서 비롯됩니다.
공동체는 권력을 감시하고, 책임 있게 행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모든 권력이 사랑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정의와 자비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불의에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13 12월 7일
(대림 2주일)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성평등한 예배 공동체 만들기



성서말씀 창세 1:27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성찰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예배 현장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배제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평등과 존중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참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예배 안에서 모든 목소리가 존중받게 하소서.

편견을 깨뜨리고, 서로를 섬기며 걷는 성평등한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14 12월 8일(월)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안전한 교회 - 교회의 사명



성서말씀 이사 1:17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성찰

'안전한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하십니다.
교회가 그분의 마음을 닮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우리 교회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이가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역이 곧 돌봄과 회복의 사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15 12월 9일(화)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인권과 존엄의 길



성서말씀 갈라 3:28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찰

세례 언약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응답은 신앙인의 삶의 선언이며, 인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우리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편견과 배제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Y 16 12월 10일 (수)
세계 인권의 날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교회와 세상을 위해

모두를 위한 평화



성서말씀 미가 6:8

정의를 실천하고, 은덕에 보답하며,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성찰

세계 인권의 날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연대와 기도, 행동이 세상 속에 하느님의 평화를 심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평화는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모든 인류가 당신 안에서 하나 됨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